

월/요/광/장

이병화



지난주 영화화려한 휴가'가 흥행에 대 성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과 함께 극장을 찾았다. 영화를 본 뒤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필자는 이 영화에 일부 감동적인 장면들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다. 그러나 필자는 5·18항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는 이에 맞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화려한 휴가'가 남긴 과제

부산영화제 김동호 위원장이 어느 날 필자에게 기획시대 유인택 사장을 소개하였고 아마 그런 연유로 유 사장으로부터 시나리오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5·18재단 등의 검토를 거쳐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소중한 소재이니 영화를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전 어느 문화계 모임에서 대표 한 분이 이 영화가 관객에게 준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광주시민은 폭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분은 영화제작자도 이런 메시지 정도로 광주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 우리에게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까? 자유, 평등, 인류애가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이듯이 이 영화에서 내세우고 싶은 광주의 정신 또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2005년 가을 노벨평화상 수상자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박광태 광주시장과

함께 로마를 방문하여 고로바초프 등을 만나 강조했던 광주정신은 비폭력, 평화, 용서와 화해였다. 귀국 후 언론인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 실제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도 비폭력 항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5·18항쟁의 짧은 시민자치공동체 기간동안 공권력 부재의 상태에서도 단

한 건의 폭력과 절도가 없었고 시민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2년 전 로마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광주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들어 비폭력과 평화가 5·18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폭력은 독재자들에게 저항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저항하는 구성원간 즉 광주의 경우 시민간에 폭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광주정신을 5·18항쟁 기간의 현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광주항쟁이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함께 정취한 공유물이듯이 광주정신도 5·18항쟁 당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시민자치공동체의 전례가 된 파리리프린 등과는 달리 5·18항쟁 당시 광주에서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대동소공을 구현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와 인권의 실천, 관용과 화해의 실천, 협력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광주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수·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기업 파업 자제해야 지역경제 살아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101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기업이 파업을 자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기업의 파업은 조업중단과 단축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 파업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 대기업이 파업할 경우 70.3%가 조업중단이나 조업단축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축소와 납품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채산성도 떨어진다. 파업과 채산성 관계에 대해 '매우 크다'가 48.0%로 가장 많았고 '크다'도 39.0%에 달했다. 그렇다고 특별한 대응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58.0%가 '거래처 다변화'를 꼽았고 '휴가(41.0%)'와 '잔업·특근 중단

(35.0%)' 등이 고작이었다.

대기업의 파업은 지역경제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자동차·전자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50.4%)', '지역 이미지가 하락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46.5%)', '고용감소(38.6%)', '지역경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파업 자제가 필수적인 것이다.

대기업 파업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 대기업이 파업할 경우 70.3%가 조업중단이나 조업단축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축소와 납품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채산성도 떨어진다. 파업과 채산성 관계에 대해 '매우 크다'가 48.0%로 가장 많았고 '크다'도 39.0%에 달했다. 그렇다고 특별한 대응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58.0%가 '거래처 다변화'를 꼽았고 '휴가(41.0%)'와 '잔업·특근 중단

안전사고 빈발 저가항공 대책 서둘러야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단거리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찔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9시 37분께 승객 74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제주발 제주항공 502편이 활주로를 이탈해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저가항공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초속 26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만 제주항공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 2월 1일 김포공항 착륙 도중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내 건설교통부로부터 긴급 안전고고를 받았다. 당시 사고원인 조사에서 바퀴 계통의 베어링 파손 등 결함이 발견됐다. 지난해 8월 31일에는 김해공항에 착륙하다가 비행기 동체가 활주로 바닥에 끌리기도 했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이다. 양대 항공사는 국내선 이외에도 일본과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취항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이 각각 주력기로 사용하고 있는 Q-400과 ATR72는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운항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펠러 엔진으로 제트엔진에 비해 가격이 싸고 기름값이 적게 든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싸고 다양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아무리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다고 해도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 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저가항공사인 PMT항공이 추락해 한국인 1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시스템 강화 등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가 당선되면 범죄자들을 말뚝으로 찔러죽이는 형벌을 도입하겠다." 미국 대통령선거 레이스에 뛰어들 한 후보가 내건 실제 공약이다. 말뚝형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흡혈귀·마녀·이교도당' 소속의 조너선 사키. 40대인 그는 자신이 5살 때부터 괴를 마신 흡혈귀라고 공언하고 있다. 당선되면 부시 대통령에게 말뚝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가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희망자는 대략 200~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은 웃음거리 정도로 치부되나 승리를 확실하게 후보도 없지 않다.

'흡혈귀당' 사키 후보는 "미국도 이제서야 남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힐 기회를 갖게 됐다"고 기쁨을 토하고 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90명. 유력 후보도 있지만 대

부분은 무명인사들이다. 무속인, 승려, 목사, 작가, 청소부, 농민, 보모, 부동산 임대업자, 청원경찰, 주부 등 직업도 다양하다. 모두가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제도 덕분이다.

우리나라 대선에서의 대표적 군소후보는 카이젤 수염으로 유명한 진복기씨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71년 7대 대선

진복기



에서 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12만2천914표(1.0%)를 얻은 것이 전부지만 평생을 잠재적 대선 후보로 지냈다. 97년 대선까지도 그는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달라고 통사정했다. 시인 고은은 '만인보'에서 "어떤 위엄도 / 어떤 적의도 없는 / 이빨 누런 당수의 웃음이 고작이었다"고 단골 후보 진복기씨를 그렸다. 그의 출마는 군부정권과 민주세력간 살벌한 선거판의 양념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은근한 미소를 남겼었다. 예비후보 90명 시대의 대선판을 바라보며 진짜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오승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법조칼럼

박성호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속 대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당시 드라마를 볼 때는 주인공인 사채업자가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로부터 끈질기게 돈을 받아내는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추심업자의 빛 독촉이 시달리다 개인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관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올해 나이 30대 후반의 여성인 A씨.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인해 어린 남매를 데리고 빈 몸으로 집을 나왔다. 여자 혼

심리한 한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사연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요즘 광주지방법원에는 광주·전남지역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반영하듯 위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파산 신청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가정파괴, 범죄와 자살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개인파산제도는 매우 불이익하고

"사채업자가 조폭보다 무섭다"

자의 몸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던 A씨는 여기저기서 빚을 내 작은 분식집을 냈지만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분식집의 문을 닫고 말았다.

가난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기술도 없었던 A씨는 단란회사에 빠져들었고 이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돈만 날린 채 회사를 나가고 말았다.

10만 원짜리 단란방에 세 식구가 모여 살면서도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오던 A씨는 계속된 가난과 함께 갑상선암이라는 뿔살 병까지 얻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자녀 때문에 차마 자살 시도는 하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다.

A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나자 그동안 A씨를 괴롭혔던 채권추심업자의 빛 독촉이 사라졌다. 이 내용은 최근에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인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 딱한 사정을 호소하던 채무자에게 없는 돈을 쫓겨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이제 와서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자를 채권자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아직 젊고 건강하여 노동 능력이 충분함에도 빌린 돈을 다 쓰고 난 후 이자를 성실하게 변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파산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법원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개인파산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급증하는 개인파산사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채무자에게 공정한 심리를 통해 경제적 경쟁의 기회를 신속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채권추심업자나 사채업자의 빛 독촉을 중단시킬 만큼 무서운(?) 파산법관의 고뇌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최환연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나선 경험은 모든 세대의 공통된 추억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래시장 풍경은 당시와 판이하다. 장터 좌판에서 산 운동화를 풀에 품고 엄마가 사준 짬뽕이나 냉차를 떠올린다면 구세대다. 그러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가르는 카트를 타고 패스트 푸드와 인기 절정의 게임 CD가 최고라던 신세대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며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시장의 개념과 유형은 많이 변했다. 원래의 시장은 이제 '재래'라는 말이 붙었고 시장의 역할은 대형 유통업체가 차지했다.

그리고 '혁신과 창조'.

각 지역별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전략 품목을 선정해 동일 업종 밀집효과를 살리는 한편, 인근 지역의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태를 검토해 볼만 하다. 또 5일 시장의 경우 주 5일제와 같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개장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여기에 그날의 품목을 정해 '10년전 가격으로 드립니다'와 같은 게릴라 세일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고객들에게 '이곳에 오면 무언가 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 하겠다. 차가운 바코드로 범벅된 대형유통업

선택과 집중으로 재래시장 살릴 수 있다

광산구에도 송정과 비아 5일시장이나 송정매일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지만 상행은 어느 곳과 닮았음이 어렵다.

그동안 광산구는 민선 4기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활성화 방안을 각계 전문가로 부터 들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과학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다.

또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마지막 주를 장보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유통업체의 장점과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름의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 많은 병력과 뛰어난 화력을 보유한 적을 상대할 때 게릴라 전으로 맞서는 것이 병법의 상식이다. 재래시장도 대형유통업체가 손을 뻗칠 수 없는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은 무슨 무기로 맞서야 할까?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

체와 달리 우리 재래시장은 '정'이 가득하다. 예누리와 담이 살아 있고 부모 연배를 되는 상인들의 정감어린 '육'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다. 재래시장을 불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문화의 단장으로 꾸며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현금 영수증 발급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혁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고객의 기호를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멀리 보는 안목에서 우러난 양보와 타협으로 공동 브랜드개발, 적극적인 관촬활동 등을 통한 동맹군으로 뭉쳐야 한다.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모두가 웃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광주 광산구청 지역경제팀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농촌노인엔 무료로 실시 됐으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움직이기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도시와 농촌의 고령 농민들에게 생활을 돕고 추진하는 제도다. 많은 농민들이 현재 이 제도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복지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인데 반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는 월 3만6천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층 영세 농민들중 현금을 주고서 노인 돌보미를 받을 농촌노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상당수 노인들이 매달 10만원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면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평생 농업생선에 종사한 농촌노인이라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조건 무료로 노인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 다음 농업생선에 종사하지 않았던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이승중·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본인 동의없이 사진 촬영 인터넷 유포, 절대 안된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은 '몰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접했다.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갖고 있는데다 인터넷에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시도때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승강기가 벌어지는가 하면 주먹 다짐으로

이어져 경찰서 신세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뿐만 아닐 것이다. '몰카' 열풍과 함께 자신있게 표현하는 신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상당수 해수욕장과 수영장 등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작정 '노카' 좋다고 철없는 짓을 해서 안된다. ▲이미숙·광주시 서구 금호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